

자전거 타고 10년간 세계 일주

자전거로 10년간 세계를 일주한 일본인이 귀국했다. 출발 당시 25세이던 그는 고국에 돌아오니 35세가 돼 있었다.

9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세계 5대륙을 주파한 자전거 모험가 데보리 요사카즈 씨의 조촐한 귀국 환영 행사가 전날 지원자들의 환호 속에 도쿄 지요다구에서 열렸다.

영상제작업체에 다니던 데보리 씨는 고교 시절부터 세계 일주의 꿈을 품어왔다고 한다. 그는 마침내 2009년 6월 대장정에 올랐다.

자전거를 타고 세계를 일주하며 곳곳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인생을 배우자고 마음먹은 것이 동기였다.

그가 자전거를 타고 달린 나라·지역은 무려 115곳으로, 주행 거리는 약 12만km에 달하는데, 그 여정은 고스란히 일기와 사진 속에 남아 있다. 그는 지난 10년간의 세계 일주 여행 중 여러 시련이 있었지만 한 번도 일본 땅을 밟지 않았다. /연합뉴스

아파트서 '불법 애완 곰' 적발

말레이시아 한 아파트 주민들이 옆집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조사한 결과 애완용으로 불법 사육 중인 곰을 찾아냈다.

9일 일간 더 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아파트 주민들이 지난 6일 이웃집에서 '태양곰'(Sun bear·말레이곰) 새끼를 찾아내 야생동물 보호 당국에 신고했다.

생후 6개월 정도로 추정되는 이 곰은 아파트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포효하다 이상한 소리를 찾아 나선 주민들에게 발견됐다.

말레이시아는 1997년부터 태양곰을 야생동물 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 중이다. 현재 야생의 태양곰은 300~500마리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피 한 방울' 암 검사 키트 개발

일본 화학기업인 도레이가 혈액 한 방울로 다양한 암을 발견할 수 있는 검사 키트를 이르면 내년엔 시판할 전망이다.

9일 니혼게이지(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도레이는 일본 국립암연구소 등과 손잡고 2014년부터 추진한 암 진단 키트 개발 프로젝트를 최근 마무리했다.

현재 유전자 검사로 암을 찾아내는 방법은 미국 등에서 실용화돼 있지만 상당한 양(수십ml 이상)의 혈액이 필요하고 실제 발견 비율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레이가 개발한 키트는 수만엔(수십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한 방울의 피만 있으면 여러 암을 동시 진단할 수 있고 판정 정확도는 95% 이상에 달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체장암 등의 조기 발견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연합뉴스

헝가리 침몰 유람선 이르면 오늘 인양될 듯



허블레야니호 인양에 투입되는 크레인 클라크 아담이 7일(현지시간) 사고 현장인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머르깃트 다리 인근에 도착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크레인에 본 와이어 연결 고정작업 마무리 단계 헝가리 측 판단만 남아...창문틀 유실방지 바 고정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야니호를 크레인에 연결 고정하는 작업이 8~9일(현지시간) 마무리되고 이르면 10일께 또는 11일 인양이 이뤄질 전망이다.

헝가리 대테러청(TEK) 여센스키 난도르 공보실장은 사고 발생 11일째인 8일 오후 현지 언론과 한국 취재진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월요일(10일)이 가톨릭 성령강림 대축일 휴일인데 그중에는(인양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현지 매체인 index.hu가 전날 TEK 관계자를 인용해 9일 새벽 인양(한국시간 9일 낮)이 시작될 수 있다고 보도한 것보다 조금 시점이 늦춰진 셈이다.

10일쯤이라는 게 9일인지 10일을 의미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질문에 헝가리 측은 구체적으로 시기를 못 밝히지 않았다.

한국 측 현장 관계자는 "내일까지 22mm 본 와이어가 다 들어간다. 본 와이어

가 자리를 다 잡으면 아마 월요일쯤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본다"며 "향후 48시간이 매우 중요하고 본 와이어가 들어가면 인양 속도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본 와이어를 결속하는 작업만 남았기 때문에 인양 시기는 사실상 헝가리 TEK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M1 방송 등 현지 매체들은 11일 인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해 인양 준비 상황에 따라 10~11일 TEK가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합동신속대응팀 현장 지휘관인 송순근 주(駐)헝가리 한국대사관 국방무관(대령)은 오전 브리핑에서 "어제 이어 헝가리 구조당국이 와이어 결속작업을 계속하고 우리 대원들은 헬기 수색과 수상 수색을 한다"고 말했다.

송 대령은 "유도 파이프와 10mm 유

도 와이어, 22mm 본와이어가 들어가는 데 유도 파이프는 거의 완료 상태에 있고 선체 창문틀에는 시신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바를 고정한다"고 덧붙였다.

헝가리 측은 "10일은 공휴일이라 선체 작업은 계속해도 공식 브리핑은 할 수가 없다"며 "11일 기자회견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전이라도 중요한 사안은 국영 통신인 MTI를 통해 전달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송 대령은 실종자 수색과 관련해 "어제처럼 헬기를 이용한 공동 수색과 수상 수색을 계속한다"며 "헝가리에서 지원한 수색선 3마리와 독일 민간단체가 지원한 4마리가 수색에 투입된다"고 밝혔다.

수색경들은 사고 지점에서 100km 가량 떨어진 펍시에서부터 수색을 시작했다.

6일 한국인 탑승객 시신 2구를 수습한 이후 7일에는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8일 오후에는 6시 30분께 사고 현장에서 22km 하류 지점인 이르데에서 사고 관련 실종자일 가능성이 높은 한국인 추정 여성 시신 1구가 수습됐다. /연합뉴스

“中, 삼성·SK에 ‘트럼프압박’ 협조말라” 경고

NYT 보도 “美에 협조시 심각한 결과 직면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가 관세폭탄과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해 거래제한 조치를 취하며 중국에 대해 전방위 압박을 강화한 가운데 중국이 글로벌 테크놀로지 업체들을 불러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압박에 협조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이 부른 테크 기업에는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도 포함됐다고 NYT는 전했다.

NY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4~5

일 주요 테크 기업들을 불러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과 거래금지 조치에 협조하면 “심각한 결과(dire consequences)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또 미중 대결 격화에 따른 중국내 해외 기업들의 탈출 가능성과 관련, 표준적인 다변화 차원을 넘어서는 중국 내 생산의 어떤 해외 이전 움직임도 응징(punishment)을 받을 것이라고 기업들에 명확히 경고했다고 NYT는 전했다. 중국이 부른 기업에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와 델을 비롯해 삼성과 SK하이

닉스, 영국의 반도체 설계업체인 ARM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도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도 기업들에 대한 압박에 나서면서 한국 기업들이 미중의 대결 격화속에서 ‘유란’을 맞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자국 기업의 권익을 침해한 외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고 밝힌 상태다. NYT는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당 기업들이 관련 문의에 언급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北, 원산 리조트 완공 24시간 총력전

북한이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완공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24시간 교대근무를 시키는 등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8일(현지시간)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강원도 원산 일대에 건설 중인 관광지구에 대한 현장 르포 기사를 통해 이런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광지구에는 호텔, 놀이 시설, 해변 길, 수상공원 등 연간 100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리조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다.

신문은 이 관광지구를 북한 엘리트층과 미국의 농구 스타인 데니스 로드맨과 같은 부유한 외국 관광객을 위한 해변 궁전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주 찾는 플로리다 팜비치의 호화리조트 마라라고(Mar-A-Lago)와 비교하면서, 북한의 김씨 일가가 수십 년 동안 원산의 휴양시설에서 제트 스키와 요트를 타고 호화 연회를 열었다고 썼다. /연합뉴스

4개월만에 콜롬비아 국경 개방 생필품 찾는 베네수엘라인 쇄도

베네수엘라 정부가 4개월간 폐쇄했던 국경을 다시 열자 베네수엘라인 수천 명이 음식과 약 등 생필품을 구하기 위

해 이웃 콜롬비아로 쏟아져 들어갔다.

AP 통신 등 외신은 8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정부가 콜롬비아 국경을 재개방하자 수천 명이 달리는 베네수엘라인이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를 연결하는 국경 다리 두 곳으로 몰려들었다고 전했다. 베네수엘라인들은 이날 콜롬비아 쿠쿠

타시 인근의 시몬 볼리바르 국경다리와 프란시스코 데 파올라 산탄데르 국경다리에 길게 줄을 섰다. 구호물자 대부분은 마두로 대통령의 반대파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지지하는 미국 정부가 보낸 것으로, 마두로 정권은 주권 침해를 이유로 구호물자를 거부했다. /연합뉴스

중흥 정상에 우뚝 서다!

열손가락 없는 장애를 딛고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산악인 김흥빈 대장,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다.
역경을 딛고 정상을 향한 끝없는 도전정신, 바로 중흥S-클래스의 정신입니다!

히말라야 8000m급 14개 봉우리 중 13번째 봉우리 가셔브롬 I (8068m) 정상에 오른 김흥빈 대장(2019. 7. 7)

중흥S-클래스

www.s-class.co.kr

중흥S-클래스

목포하당지구 중흥S-클래스 센텀뷰 세종시 중흥S-클래스 센텀뷰 광교신도시 중흥S-클래스

2018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 2017 매일경제 '살기좋은 아파트' 국무총리상 | 한국경제 '주거문화대상' 아파트 대상
- 2016 매일경제 '토목건축기술대상' 건축부문 주거용 최우수상 | 한국경제 '주거문화대상' 브랜드대상
- 2015 대한민국 효효를 친환경 주거 및 건축 기자재 대상 | 매일경제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상
- 2014 한국경제 '주거문화대상' 종합대상 | 한국경제 '주거문화대상' 아파트상